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이 종 선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Psychiatry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내적 속박감 (Internal Entrapment Scale: IES) 및 외적 속박감 척도 (External Entrapment Scale: EES)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K지역 대학생으로 총 401명이며,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뒤 내적 및 외적 속박감 척도와 관련 척도들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내적 신뢰도는 내적 속박감 .89 그리고 외적 속박감 .9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모두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설명량은 내적 속박감 59.56% 그리고 외적 속박감 51.02%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에 속해 있는 각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 및 다중 상관계수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의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도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은 자기비난, 내면화된 수치감, 우울, 정적 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 및 자살사고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수렴 및 공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은 자기비난 및 내적 수치감을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우울, 부적 및 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및 자살사고와 유의한 편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은 자기비난 및 내적 수치감을 통제 한 후에도 각기 우울,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삶의 만족도 및 자살사고에 대한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여줌으로써 증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가 속박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척도에 대한 제한점 및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적 속박감, 외적 속박감, 우울,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 조현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번지
Tel: 053-810-2237, E-mail: itslife@ynu.ac.kr

최근 우울증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Gilbert, 1992; Slomon & Gilbert, 2000). Gilbert(2001)와 Dixon(1998)은 우울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저지된 방어모델(the arrested defences model)”로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동물이나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분노감(anger)을 느끼고 그런 상대나 상황에 투쟁하고자 하거나(fight) 또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flight) 방어기제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런 시도가 효과적이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돌입하여 긍정적인 정서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우울증을 경험하는 된다는 것이다(Gilbert, 2006). 저지된 방어모델은 우울증을 통제감의 상실로 설명한다는 점이 학습된 무기력감과 유사하지만, 학습된 무기력감과 달리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 보다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높은 동기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저지된 방어모델은 스트레스 방어 시스템이 차단되어짐으로 인해 비롯되는 속박감 혹은 억제된 분노감이 우울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점이 학습된 무기력감과 다르다.

속박감(entrapment)이란 현재 처해진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수준은 높지만(활성화된 투쟁 욕구) 그런 상황에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Brown, Bifulco & Harris, 1987). 브라운 등(1987)은 우울을 유발하는데 스트레스 경험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속박감이나 굴욕감이 더 우울과 밀접히 관련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을 추적하되, 속박감과 굴욕감이 수반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하여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울증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속박감이나 굴욕감이 수반되지 않는 상실 경험 (예를 들면, 가족의 죽음) 보다는 속박감 및 굴욕감이 수반되는 상실 및 분리 경험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이 우울을 유발시킬 확률을 3배 이상 높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Brown, Harris & Hepworth, 1995). 이후 우울을 유발시키는 중요 변인으로 속박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Craig, 1996).

Gilbert 와 Allan(1998)은 주어진 상황이나 관계 또는 내면의 고통스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높지만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속박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속박감 척도의 문항들은 우울증 환자들의 주관적인 내면의 감정과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연구자들은 먼저 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모아진 스크립트 중에서 속박감과 관련된 문장들을 가려내고 최종 문항들을 구성한 뒤, 다시 내적인 속박감과 외적인 속박감으로 분류하여 두 개의 개별 척도로 묶었다. 내적 속박감은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지각하는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적 속박감은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는 동시에 그런 상황에 간혀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끼는 1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개발된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은

일반 대학생 302명(남성: 69명, 여성: 233명) 및 우울증 환자 90명(남성: 42명,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대학생 집단: Cronbach alpha = .88, 우울증 환자 집단: Cronbach alpha = .89)를 보여주었으며 내적 및 외적 속박감 모두 요인분석 결과 각기 단일요인으로 묶이기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및 순종적 행동(submissive behavior)의 우울에 대한 설명 변량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내적 속박감(12%) 및 외적 속박감 척도(7%)가 우울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증분타당도가 입증되었다(Gilbert & Allan, 1998). 최근 Trachsel과 Kriege, Gilbert 및 Holtforth(2010)은 영어판 속박감 척도를 독일어로 번안하여 일반인(54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높은 신뢰도(Cronbach alpha = .95)와 타당도를 보여주었는데, 원래 연구와는 달리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개별 척도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척도로 간주하여 단일 요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독일어판 연구에서 역시 우울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속박감 척도의 우울에 대한 증분 설명량(5%)을 유의하게 보여줌으로써 증분타당도가 입증되었다.

Gilbert와 Allan에 의해 속박감 척도가 소개된 이후 속박감은 무쾌감증, 우울 및 자살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Gilbert와 Allan, Brough, Melley 및 Miles(2002)는 대학생 및 다양한 정신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이 무쾌감증(anhedonia)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Gilbert, Cheung, Iron & McEwan, 2005)에서 내

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모두 우울은 물론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수치감 및 반추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반추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내적 속박감 척도가 유의한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속박감 척도는 또한 반추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rman과 Mongrain (2005)은 이전의 우울 과거력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비난, 내적 속박감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기비난은 내적 속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내적 속박감은 자기비난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ldstein과 Wilner(2002)가 수행한 실험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속박감 척도의 점수 변화를 우울 기분 유도 전후로 살펴보았는데, 우울 및 내적 속박감 척도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개인들에게서 우울 기분을 유도했을 때, 내적 속박감 척도의 점수가 더 유의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내적 속박감 척도의 점수 변화는 우울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내적 속박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우울해지게 될 때 우울이나 속박감을 더 상승시킬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된 속박감과 우울의 상관은 임산부(Hagen, 2002) 및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Martin, Gilbert, McEwan & Irons, 2006; Yoon, 2003)에게서도 관찰되었다.

지각된 속박감은 자살의 핵심기제로 설명되어 지기도 한다. Baumeister(1990)는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팽배해 있지만, 더 이상의 탈출구가 막혀버렸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자살

을 시도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자살은 현실로부터의 탈출 행위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Williams, 1997). Holmes와 Crane, Fennel 및 Williams(2007)은 속박 및 탈출과 관련된 이미지가 자살 과거력이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현실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강한 동기 및 지각된 속박감이 자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모델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O'Conner, 200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적 및 외적 속박감이 사회적 지지 및 문제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 Wood, Gooding & Tarrrier, 2010). Kidd(2004)는 청소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자살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추적해 보았는데, 속박감, 무가치감, 소외감, 무망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속박감이 자살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변인임을 알아내고, 후속 연구에서 청소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약물남용 및 의존, 가족 폭력 과거력, 그리고 낮은 자존감 및 소외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을 설명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Kidd, 2006). 또한 속박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도 깊이 관련되어질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 증상 중 하나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침입적 이미지나 생각들 또는 플래쉬백(flashback)을 통해 현재에서 재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과거 경험했던 외상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이미지들 그리고 외상 사건이 초래한 현실 상황에 계속 속박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Lee, 2006).

국내에서는 Park과 Ryu, Han, Kwon 및 Kim(2010)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속박감이 자살사고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아냈다. 천숙희와 차보경(2008)은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속박감이 열등감과 우울을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속박감이 고등학교 여학생의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천숙희, 2008). 한편, 권정혜와 이소영(2008)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외적 속박감이 남편 및 아내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도는 물론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속박감은 우울증, 자살 이외에 다른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속박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며 더욱이 타당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 영역이 경쟁구도에 내몰리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뒤쳐진 사람은 진퇴양난의 속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속박감은 점차적으로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박감을 사전에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개입을 통해 향후 질병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속박감과 관련한 다양한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우울 및 자살 기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속박감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lbert와 Allan이 개발한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뒤, 척도에 대해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검사-재검사 신

뢰도 그리고 수렴, 공존 및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지방 소재 Y대학교 대학생 401명(남성: 222명, 여성: 179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22.39세(표준편차: 1.89), 여성이 20.65세(표준편차: 2.93)였다.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학년 9명(4.1%), 2학년 132명(59.5%), 3학년 43명(19.4%), 4학년 38명(17.1%), 여성의 경우 1학년 27명(15.1%), 2학년 74명(41.3%), 3학년 35명(19.6%), 4학년 43명(24.0%)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속박감척도(Entrapment Scale, ES)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는 현재 처해진 부정적인 상황, 관계 그리고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다시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척도로 나뉘어져 있다. ‘내적 속박감(Internal Entrapment)’ 척도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외적 속박감’(External Entrapment) 척도는 현재 처해진 상황이나 관계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척도 모두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영어판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의 신뢰도 계수는 .93(대학생 집단) - .86(우울증 환자 집단)으로 나왔고, 외적 속박감의 신뢰도 계수는 .88(대학생 집단) - .89(우울증 환자 집단)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는 내적 속박감 신뢰도 계수는 .89 그리고 외적 속박감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자기비난 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 Questionnaire, DEQ)

Blatt(1976)의 우울경험질문지(DEQ)의 하위척도들(자기비난, 의존성, 효율성) 중에서 김정미와 조현재(2009)가 번안한 자기비난 13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기비난 하위 척도는 죄책감, 내적 공허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관계악화,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서 오는 불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비난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 .89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Cook(2001)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내면화된 수치감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 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 .87이었다.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일반인의 임상수준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병원 불안-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Zigmond와 Snaith(1983)이 개발하고,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1999)이 표준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HAD-D)는 총 7개 문항의 4점(0-3점의 범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70$ 으로 나타났다.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와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는 각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각 10개의 형용사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적 정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75$ 이고, 부적 정서는 .81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Diner, Emmons, Lea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박정현과 서은국(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5 문항의 7점(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75$ 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이 자살 생각 및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박광배와

신민섭(1990)이 번안하여 자기보고식으로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먼저 원저자에게 이메일로 한국판 속박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 대한 목적을 알리고 척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두 명의 임상심리학자가 내적 속박감 6문항 및 외적 속박감 10문항을 각각 독립적으로 번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최종 합의를 거쳐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의 박사과정생이 한글판 척도를 역번안하였다. 이후 한국어 번안판과 역번안판을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 3명의 연구자들의 최종 검토를 통해 번안 과정을 마쳤다. 최종적으로 속박감 척도 및 관련 척도들이 연구동의서와 함께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동의서에 승인한 자료만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최종자료는 다시 무선화하여 두 표본으로 나눈 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각각 사용되었다

통계분석

한국판 내적 속박감 총 6문항 외적 속박감 척도의 총 10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을 확인하였고,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 최

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시켜야 하고(Kahn, 2006),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식은 최근 적절한 요인분석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Fabrige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본 연구에서는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채택하였으며,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행되었다. 최종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 도표(Scree plot)와 고유값(Eigenvalue) 1.0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내적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측정모형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렴 및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이 그리고 증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상관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상관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AMOS 6.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신뢰도: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일치도

한국판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내적 일치도와 문항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Cronbach's α 는 내적 속박감이 .89 외적 속박감이 .92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치도를 입증하였다. 내적 속박감 소척도 전체 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은 .47 -.86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외적 속박감 소척도 전체 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은 .43-.79의 분포를 나타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속박감 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한 달 간격)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내적인 속박감이 .77($p < 0.01$), 그리고 외적인 속박감이 .76($p < 0.01$)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내적 속박감 척도(Internal entrapment scale). 먼저 Barlett 검사에서 χ^2 값 및 유의도가 타당한 수준($\chi^2(15) = 672.03$ $p < .001$)으로 나왔으며, KMO값 또한 1에 가까운 수치로 (0.88), 본 연구의 내적 속박감 척도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고유값(Eigenvalue)과 스크리 도표(Scree plot)을 확인한 결과, 1개의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9.56%(고유값 = 3.57)로 나타났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각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적 속박감 척도가 단일요인으로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적 속박감 척도(External entrapment scale). Barlett 검사의 χ^2 값 및 유의도가 타당한 수준($\chi^2(45) = 1018.40$ $p < .001$)이었으며, KMO값 또한 .92로, 본 연구의 외적 속박감 척도의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역시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고유값(Eigenvalue)과 스크리 도표(Scree plot)의 결과를 통합해 볼 때, 외적 속박감 척도에서도 1개의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1.02%(고유값 = 5.10)로 나타났다. 표 1에 제

표 1.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 및 총 설명량

		요인부하량
내적 속박감		
문항1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790
문항2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	.594
문항3	나는 내 생각들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859
문항4	나는 내 안에 갇혀 버린 것 같다	.802
문항5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805
문항6	나는 깊은 구렁이에 빠져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	.754
총 설명량 (고유치)		59.56% (3.57)
외적속박감		
문항1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758
문항2	나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718
문항3	나는 빠져 나갈 수 없는 관계를 하고 있다	.706
문항4	나는 도망가고 싶다는 감정을 종종 가진다	.749
문항5	나는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다	.716
문항6	나는 내가 짊어진 의무들에 갇혀 버린 것 같다	.746
문항7	나는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	.738
문항8	나는 내 인생에서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620
문항9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709
문항1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갇혀 버린 것 같다	.673
총설명량 (고유치)		51.02% (5.10)

시되어 있듯이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역시 모두 높은 기준점(.6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적 속박감 척도가 단일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및 외적 속박감의 단일 요인구조가 다른 집단에서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내적 속박감

내적 속박감 척도(Internal entrapment scale).

먼저 전통적 타당도와 신뢰도의 대안

으로 요인 부하량에 대한 추정치와 다중상관 계수를 살펴보았다(Long, 1983). 요인 부하량은 .50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각 요인 부하량이 모두 표준오차의 두 배 이상이며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구성 타당도에 해당하는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Anderson & Gervig, 1988). 본 연구에서도 먼저 요인 부하량에 대한 최대 우도 모수추정치 및 다중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모든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추정치 계수가 모두 .50

를 상회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1 미만으로 보고되어 내적 속박감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상관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문항 5 번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들의 계수가 적절한 수준을 보고하고 있어,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평가는 Gerbing과 Anderson(1993) 및 Hu와 Bentler (1999)가 제안한 기준으로 (1) Chi-square statistic ($p > .05$); (2) Non-normed fit index (NNFI $> .90$); (3)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SRMR

표 2.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의 측정모형에서의 요인 부하량 모수 추정치 및 다중상관 계수

	추정치(표준 추정치)	표준오차	t	다중상관계수(R ²)
내적 속박감				
문항1	1.00(.79)	-	-	.56
문항2	0.77(.64)	.06	13.16***	.59
문항3	1.20(.84)	.07	18.18***	.65
문항4	1.04(.80)	.06	17.16***	.71
문항5	1.19(.77)	.07	16.21***	.41
문항6	.82(.75)	.05	15.78***	.61
외적속박감				
문항1	1.00(.74)	-	-	.53
문항2	1.21(.70)	.09	13.88***	.56
문항3	.89(.68)	.07	13.42***	.41
문항4	1.43(.79)	.09	15.70***	.59
문항5	1.15(.74)	.08	14.77***	.58
문항6	1.26(.76)	.08	15.14***	.55
문항7	1.14(.77)	.07	15.35***	.62
문항8	1.05(.64)	.08	12.62***	.46
문항9	1.42(.75)	.10	14.94***	.49
문항10	.97(.73)	.07	14.50***	.55

*** $p < .001$

< .08); (4) Comparative fit index (CFI > .90)를 살펴보았다. χ^2 를 보면 $\chi^2 = 41.856$, $df = 9$, $p = .000$ 로 나타났다. 이는 χ^2 의 p 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적합도 지수 중 χ^2 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통한 검정가설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박재진, 이정교, 2006, 2007; Kline, 2005), 모형평가의 기준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안으로서 이학식과 임지훈(2008)은 χ^2 을 자유도로 나누어 5보다 작을 경우 적합도가 높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χ^2 을 자유도로 나눈 결과 5보다 작은 4.65로 나와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는데, NNFI = .943, SRMR = .03, 그리고 CFI = .966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내적 속박감 척도가 단일 요인 모델로서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외적 속박감 척도(External entrapment

scale). 모든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추정치 계수가 .60을 상회하고 이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1 미만으로 나와 외적 속박감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상관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항목들의 계수가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만족할만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도 평가에서, χ^2 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chi^2 = 151.945$, $df = 35$, $p = .000$ 로 p 값이 .05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χ^2 을 자유도로 나누었을 때 4.34로 5보다 작아,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모형 적합도 지수들에서는, NNFI = .930, SRMR = .05, 그리고 CFI = .946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외적속박감 척도가 단일 요인 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공존타당도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수렴 및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속박감과

표 3.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척도	χ^2	df	CFI	NNFI	SRMR
내적 속박감	41.856	9	.966	.943	.03
외적 속박감	151.945,	35	.946	.930	.05

표 4.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과 자기비난, 내면화된 수치감, 우울, 부적 정서, 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및 자살사고와의 상관계수

척도	자기 비난	내면화된 수치감	우울	부적 정서	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자살
내적 속박감	.72***	.81***	.55***	.57***	-.41***	-.57***	.51***
외적 속박감	.69***	.78***	.53***	.60***	-.35***	-.53***	.58***

*** $p < 0.001$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상관 분석 결과, 내적 속박감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비난($r=.72, p<.001$) 및 내면화된 수치감($r=.8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적 속박감 역시 자기비난($r=.69, p<.001$) 및 내면화된 수치감($r=.7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건강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내적 속박감은 우울($r=.55, p<.001$), 부정정서($r=.57, p<.001$) 그리고 자살($r=.5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적 정서($r=-.41, p<.001$) 및 삶의 만족도($r=-.57,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외적 속박감 역시 우울($r=.53, p<.001$), 부정정서($r=.60, p<.001$) 및 자살($r=.5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적 정서($r=-.35, p<.001$) 및 삶의 만족도($r=-.53,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중분 타당도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의 중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척도들(자기비난 및 내면화된 수치감)의 각 효과를 개별적으로 통제한 다음,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가 여전히 정신건강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편상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기비난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이 우울, 정적 및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살과 여전히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 내적 속박감은 자기 비난의 효과를 통제하고 난 후 우울($r=.31, p<.001$), 부정정서($r=.22, p<.001$) 및 자살($r=.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정적 정서($r=-.22, p<.001$) 및 삶의 만족도($r=-.27, p<.0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외적 속박감 역시 자기비난의 효과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우울($r=.29, p<.001$), 부정정서($r=.29, p<.001$) 및 자살($r=.3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정적 정서($r=-.13, p<.05$) 및 삶의 만족도($r=-.22, p<.0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감을 통제하고 난 후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가 각각 다른 변인들

표 5.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과 자기비난, 내면화된 수치감, 우울, 부정 및 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자살 사고와의 편상관 계수

척도	우울	부정정서	정적정서	삶의 만족도	자살
통제변인: 자기비난					
내적 속박감	.31***	.22***	-.22***	-.27***	.24***
외적 속박감	.29***	.29***	-.13*	-.22***	.37***
통제변인: 내면화된 수치감					
내적 속박감	.27***	.09	-.13*	-.31***	.10 ⁺
외적 속박감	.24***	.17**	-.02	-.24***	.24***

⁺.05 < p < .10, *p < 0.05, **p < 0.01, ***p < 0.001

과 유의한 편상관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내적 속박감은 우울($r=.2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자살($r=.10, p = .06$)과는 유의한 경향성을 그리고 정적 정서($r=-.13, p<.05$) 및 삶의 만족도($r=-.31, p<.0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외적 속박감은 우울 ($r=.24, p<.001$), 부적정서($r=.17, p<.01$) 및 자살($r=.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삶의 만족도($r=-.24, p<.001$)와 유의한 부

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가 자기비난 및 내면화된 수치감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정신관련 척도들에 대한 설명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 내적 속박감은 자기비난 및 내면화된 수치감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우울 ($\Delta R^2=.04, \beta=.30, p<.001$), 정적 정서($\Delta R^2=.04,$

표 6. 정신건강 관련 지표들에 대한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의 설명변량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DR ²	β
우울	1	자기비난	-.29***	.35***
		내면화된 수치감		.21***
	2	내적 속박감	.05***	.37***
		외적 속박감	.04***	.30***
정적정서	1	자기비난	.11***	-.26***
		내면화된 수치감		-.09
	2	외적 속박감	.01 ⁺	-.14 ⁺
부적정서	1	자기비난	.48***	.32***
		내면화된 수치감		.42***
	2	외적 속박감	.01 ⁺	.12 ⁺
삶의 만족도	1	자기비난	.37***	-.62***
		내면화된 수치감		-.02
	2	외적 속박감	-.06***	-.38***
자살	1	자기비난	.37***	.12 ⁺
		내면화된 수치감		.51***
	2	내적 속박감	.00	.09
		외적 속박감	.03***	.29***

⁺.05 < p < .01, * p < 0.05, *** p < 0.001

$\beta = -.30, p < .001$), 삶의 만족도($\Delta R^2 = -.06, \beta = -.38, p < .001$)에 대한 증분 설명량이 유의하였으 며, 부적 정서에 대해서는($\Delta R^2 = .01, \beta = .12, p = .06$) 증분 설명량에 대한 유의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외적 속박감 역시 자기비난 및 내면화된 수치감을 통제하고 난 후에 우울($\Delta R^2 = .05, \beta = .37, p < .001$), 부적 정서($\Delta R^2 = .01, \beta = -.13, p < .05$), 삶의 만족도($\Delta R^2 = .05, \beta = -.33, p < .05$) 그리고 자살($\Delta R^2 = .03, \beta = .29, p < .001$)에 대해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나타냈 으며, 정적 정서에 대해서는($\Delta R^2 = .01, \beta = .14, p = .07$) 증분 설명량에 대한 유의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Gilbert와 Allan(1998)가 개발한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를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는데, 내적 속박감은 Cronbach $\alpha = .89$ 그리고 외적 속박감은 .92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여 주었으며,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내적 속박감(.77, $p < .001$) 및 외적 속박감(.76, $p < .001$)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양호한 수준이었다.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의 Cronbach α 는 대학생 집단에서는 .93,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는 .86으로 나타났고 외적 속박감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88 그리고 우울증 환자 집단이 .89로 나타났 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보고하지 않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독일판 속박감 척도의

경우에는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개별 적 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두 척도를 단일 요 인으로 보고 신뢰도 계수를 구했는데 Cronbach α 가 .95였으며, 3개월 간격으로 시행한 검사 - 재검사 신뢰도(.55-.77, $p < .05$)가 양호한 수준이 었다(Trachsel, Krieger, Gilbert, & Hiltforth, 2010).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의 신뢰도 결과를 영어판 및 독일 어판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비교할 때 유사 한 수준에서 양호하게 유지되어 있어 한국판 속박감 척도가 사용하기에 신뢰로운 척도임을 시사한다.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모두 1개의 단일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두 척도의 각 문항들의 요인 부하 량이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 일척도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ilbert와 Allan(1998)이 실시한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 모두 단일 요인으로 나온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을 살펴볼 때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 속박감 총 설명량(59.56%)은 Gilbert와 Allan(1998)이 수행했던 연구에서 영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 을 때의 총 설명량(74.8%)에 비해 약 15%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요인 추출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Gilbert와 Allan은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지 만, 이는 최근에 적절한 요인분석으로 간주되 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축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시행하였다.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여 나온 총 설명량은 65.94%로 5%로 정도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10%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속박감은 주로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서양의 대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분화된 형태로 인식하고 표현하기 보다는 다소 억제되어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한 대학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표본 표집의 다양성을 고려해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외적 속박감의 설명량(51.02%)은 Gilbert와 Allan(1998)이 수행했던 연구에서의 설명량(49.95%)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어판 속박감 척도의 연구(Trachsel et al., 2010)에서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단일 요인으로 두고 결과를 보고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이 단일 요인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개별 요인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9.10%로 나왔다. 원저자가 분류한대로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으로 각기 분류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도 내적 속박감이 .50을 상회하고 외적 속박감 역시 .40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2요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 속박감과 외

적 속박감이 속박감이라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기는 하나 단일 요인이라기보다는 차별적인 개념을 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이 각기 우울이나 자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었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비난과 수치감을 통제한 후,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모두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자살에 대해서는 외적 속박감만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두 척도를 하나로 묶어 사용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간주하여 연구 및 치료 장면에 활용하는 것이 변인들 간의 기제를 좀 더 차별적으로 살펴보고 심리학적인 개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영어판 및 독일어판 속박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른 표본 집단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의 검증성을 높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 척도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추정치와 다중 상관 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추정치가 .5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속박감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다중 상관 계수도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여, 신뢰도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속박감 단일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도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적 속박감 척도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추정치와 다중 상관 계수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가 .60을 상회하였으며, 다중 상관 계수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들도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의 구성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넷째, 기존 외국 연구들에서 속박감이 우울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Gilbert, 2006; Sturman & Mongrain, 2008; Troop & Baker, 2008), 자기비난, 수치감이 속박감 및 우울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Sturman & Mongrain, 2005; Dunkley, Snislow, Grilo & McGlashan, 2009; Cheung, Gilbert, & Irons, 2004)이 있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속박감이 자기비난 및 수치감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결과,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모두 자기 비난 및 내면화된 수치감과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측정시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주 후에 측정한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과의 상관을 구해 보았다. 결과 내적 속박감의 내면화된 수치감과의 상관은 .75, 자기비난과의 상관은 .68 그리고 외적 속박감의 내면화된 수치감과의 상관은 .74 그리고 자기비난과의 상관은 .64로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0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이 자기비난 및 내면화된 수치감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결과는 자기비난이나 자기 수치감이 높은 사람들이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에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고 현재 처해진 외부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나 탈출구가 없다

고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상관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Sturman과 Mongrain(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비난이 특히 내적 속박감과 상관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고, 자기비난이 내적 속박감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통해, 자기비난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자기 주장이 어렵고 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기 쉽다며, 자기비난과 내적 속박감이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한 변별된 개념일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속박감 수준이 높을 때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Fazza & Page, 2003), 자기비난과 내적 속박감이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정신병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경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추후연구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이 기존 정신건강 관련 척도들과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은 우울, 부적 정서 및 자살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적 정서 및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속박감 척도들의 공존타당도가 신뢰로운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이 결과는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상황에 속박되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결국 정적 감소가 감소하여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Gilbert, 2006)을 지지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비난 및 수치감이 우울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Sturman & Mongrain, 2005)에 기초하여, 자기비난과 수치감을 통제 한 뒤에도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이 여전히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지 증분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은 자기비난 및 수치감을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우울, 부적 정서, 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및 자살과 유의한 편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비난 및 수치감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이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에 대한 증분 설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내적 속박감은 자기비난과 수치감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우울, 정적 정서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속박감의 경우 여전히 우울, 부적 정서, 삶의 만족도 및 자살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척도가 정신병리 및 정신건강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인임을 증분타당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속박감 척도는 향후 정신병리 및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Gilbert는 속박감이 이미 진행되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이상의 탈출구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개인들이 주로 경험하는 되는 감정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속박감이 우울 및 자살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특히 속박감이 높은 개인들이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속박감 척도가 자살예방 및 치료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최근 Taylor와 Gooding, Wood 및 Tarrier(2011)는 속박감과

다양한 정신병리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델을 설정했는데, 속박감은 패배감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과 더불어 우울이나 자살뿐 아니라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과 공존되어 있는 다양한 정신과적 장애들과 관련되어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속박감 척도의 다양한 정신병리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속박감은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치료적 목표 및 치료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활용되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본 결과 모두 양호한 수준임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몇가지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소재 대학교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속박감 척도의 임상 장면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속박감 척도가 우울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알려져 왔지만, 아직 얼마만큼의 고유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우울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무망감(hopelessness)척도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속박감 척도가 여전히 우울에 대한 고유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횡단적인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우울(또는 자살 및 불안)에 대

한 원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봄으로써, 우울이 속박감을 유발하는 것인지, 속박감이 결국 우울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속박감에 특정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예, 남성, 여성 또는 교육 수준, 경제 수입 정도), 정신병리학적 변인들(예, 과거 우울력, 아동기 성폭력 경험) 또는 상황적 변인들(예, 스트레스 사건)을 조사해보는 추후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속박감 척도의 임상 장면에서의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속박감이 안정적인 특성(trait) 변인인지 아니면 상태(state) 변인인지를 추적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만약 상황이나 심리 치료적 개입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변인이라면, 속박감과 관련된 기제에 좀더 초점을 두는 치료 방법들을 기존 치료에 통합시킴으로써, 속박감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어지는 우울, 자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과 보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속박감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서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 건강 및 삶의 질과 관련한 기초 연구는 물론 임상 및 치료 장면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정혜, 이소영. (2008). 부부의 외적 속박감 및 상대적 지위 지각에 따른 분노표현과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 69-84.

김정미, 조현재.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및 의존성의 역할-대구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53, 283-306.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 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박재진, 이정교 (2006).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 측정 지수개발 및 타당성 검증. *광고연구*, 73, 61-79.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9-31.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651-670.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천숙희, 차보경. (2008).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지각된 속박감(perceived entrapment)의 매개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4, 343-351.

천숙희. (2008). 청소년의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239-247.

Anderson, J. C., & Gerbing, G.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 - 11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4), 383.
- Brown, G. W., Bifulco, A. & Harris, T. O. (1987). Life events, vulnerability and onset of depression: some refinem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 30-42.
- Brown, G. W., Harris, T. O. & Hepworth, C. (1995).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mong women developing depression: a patient and non-patient comparison. *Psychological Medicine* 25, 7-21.
- Cheung, M. S. P., Gilbert, P., & Irons, C. (2004). An exploration of shame, social rank and rumina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5), 1143-1153.
- Cook, D.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Craig, T.K.J. (1996). Adversity and depressio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8, 341-353
- Di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Dixon, A.K. (1998). Ethological strategies for defence in animals and humans: Their role in some psychiatric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1, 417-445.
- Dunkley, D. M., Sanislow, C. A., Grilo, C. M., & McGlashan, T. H. (2009). Self-criticism versus neuroticism in predicting depression and psychosocial impairment for 4 years in a clinical sample. *Comprehensive psychiatry*, 50(4), 335-346.
- Ehlers, A., Maercker, A., & Boos, A. (200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political imprisonment: The role of mental defeat, alienation, and perceived permanent chang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5 - 55.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
- Fazza, N, & Page, S. (2003).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ur.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3(2), 172 - 185.
- Gerbing DW, Anderson JC. (1993). Monte Carlo evaluations of goodness-of-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40, 65.
- Gilbert, P. (1992). *Depression: The evolution of powerlessness*. Hove: Erlbaum/New York: Guilford Press.
- Gilbert, P. (2001). Evolutionary approaches to psychopathology: The role of natural defenc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 17-27.
- Gilbert, P. (2006). Evolution and depression: issue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Medicine*, 2006, 36, 287-297.
- Gilbert, P., Allan, S., Brough, S., Melley, S., &

- Miles, J. N. V. (2002). Relationship of anhedonia and anxiety to social rank, defeat and entrap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 141-151.
- Gilbert, P., Cheung, M., Irons, C., & McEwan, K. (2005). An exploration into depression-focused and anger-focused rumina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in a student population.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3, 273 - 283.
- Goldstein, R. C., & Willner, P. (2002). Self-report measures of defeat and entrapment during a brief depressive mood induction. *Cognition & Emotion*, 16, 629 - 642.
- Hagen, E. H. (2002). Depression as bargaining: The case postpartum.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3, 323 - 336.
- Holmes, E. A., Crane, C., Fennell, M. J. V., & Williams, J. M. G. (2007). Imagery about suicide in depression—"flash-forward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8, 423-434.
- Hu L, Bentler P.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999; 6: 1-55.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Kahn, J. H. (2006). Facto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raining,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5), 684.
- Kidd, S. A. (2004). "THE WALLS WERE CLOSING IN, AND WE WERE TRAPPED" A Qualitative Analysis of Stress Youth Suicide. *Youth & Society*, 36, 30 - 55.
- Kidd, S. A. (2006). Factors precipitating suicidality among homeless youth: A quantitative follow-up. *Youth & Society*, 37, 393 - 42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agerspetz, K.M.J., Sandnabba, K. (1982). The decline of aggressiveness in male mice during group caging as determined by punishment delivered by the cage mates. *Aggressive Behavior*, 8, 319 - 328.
- Lee, D. (2006). *Case conceptualisation in complex PTSD: Integrating theory with practice*. In N. Tarrier (Ed.), *Case formulation i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The treatment of challenging and complex cases* (pp.142 - 166). London, England: Routledge.
- Manuel, T., Tobias, K., Paul, G., & Martin, G. H. (2010). Testing a German Adaption of the Entrapment Scale and Assessing the Relation to Depression.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1-10.
- Martin, Y., Gilbert, P., McEwan, K., & Irons, C. (2006). The relation of entrapment, shame and guilt to depression, in carers of people with dementia. *Aging and Mental Health*, 10, 101 - 106.
- O'Connor, R. C. (2003). Suicidal behavior as a cry of pain: Test of a psychological model.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7, 297 - 308.
- Park, Y.-J., Ryu, H., Han, K., Kwon, J. H., Kim, H. K., Kang, H. C., Shin, H. (2010).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n explanatory model using LISREL.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2, 168 - 184.
- Raab, A., Dantzer, R., Michaud, B., Mormede, P., Taghzouti, K., Simon, H., & Le Moal, M.

- (1986). Behavioural, physiological and immunological consequences of social status and aggression in chronically coexisting resident-intruder dyads of male rats. *Physiology & Behavior*, 36, 223-228.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Freeman & Co.: San Francisco.
- Sloman, L., & Gilbert, P. (2000). *Subordination and defeat: An evolutionary approach to mood disorders and their therapy*. Mahwah, NJ: Erlbaum.
- Sturman, E. D., & Mongrain, M. (2005). Self-criticism and major depress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505 - 519.
- Sturman, E. D., & Mongrain, M. (2008). Entrapment and perceived status in graduate students experiencing a recurrence of major depress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 185 - 188.
- Taylor, P. J., Gooding, P. A., Wood, A. M., Johnson, J., Pratt, D., & Tarrrier, N. (2010). Defeat and entrapment in schizophrenia: The relationship with suicidal ideation and positive psychotic symptoms. *Psychiatry Research*, 178, 244 - 248.
- Taylor, P. J., Gooding, P. A., Wood, A. M., & Tarrrier, N. (2011).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i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Psychological Bullentin*, 137, 391 - 420.
- Trachsel, M., Krieger, T., Gilbert, P., & Holtforth, M. G. (2010). Testing a German Adaption of the Entrapment Scale and Assessing the Relation to Depression.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1-10
- Von Holst, D. (1986). Vegetative and somatic components of tree shrews' behaviour, *Journal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Suppl.)*. 657 - 67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lliams, J. M. G. (1997). *Cry of pain: Understanding suicide and selfharm*.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 Williams, J.L., Lierle, D.M., 1988. Effects of repeated defeat by a dominant conspecific on subsequent pain sensitivity, open-field activity and escape learning. *Learning and Behavior*. 16, 477 - 485.
- Yoon, H.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caregivers' burden and depress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7, 291 - 311.
- Zigmond, A. S., & Snaith, R. P. (1983).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7(6), 361-370.

1 차원고접수 : 2011.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2. 2. 29.

최종게재결정 : 2012. 3. 17.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nal and Extranal Entrapment Scale

Jong-Sun Lee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Psychiatry

Hyunju, Cho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Internal Entrapment Scale (K-IES) and Korean External Entrapment Scale (K-EES) developed by Gilbert and Allan(1998). Four hundred and one university students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completed the K-IES and K-EES along with other psychometric measu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ronbach alpha for the K-IES was .89 and Cronbach alpha for the K-EES was .92, indicating good internal consistencies.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a single factor structure best fit the K-IES and K-EES, respectively. Each factor accounted for 59.56% of the variance on the K-IES and 51.02% of the variance on the K-E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a satisfactory construct validity by showing good factor loadings and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of each item of the K-IES and K-EES. Fit indices also showed the goodness-of-fit for each model of the K-IES and K-EES. The K-IES and K-E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criticism, internalized shame, depress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which supported the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y. The K-IES and K-EES maintained a strong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and life satisfaction, even after controlling for self-criticism and internalized shame. In addition, the K-IES and K-EES added substantially to the explained variance of depress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self-criticism and internalised shame, which supported incremental validity.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the K-IES and K-EES are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to assess entrapment.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future directions for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l entrapment, External entrapment, depression, reliability, validity